

# 중국, 물 부족이 경제성장 아킬레스

조사대상 600사 가운데 400사 급수 제한 ... 물 부족이 전력난으로 연결

최근 물 부족이 경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물 사정이 심각한 직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은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수자원 고갈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물 부족 경고와 공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.

신화통신에 따르면, 중국은 1인당 물 사용량이 2300m<sup>3</sup>로 세계 평균의 1/4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 전역의 600개 조사대상기업 가운데 400사가 급수제한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일부 도시에서는 물 사용규제를 위해 가정용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.

최근에는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 저수용량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 건설현장, 사우나 및 자동차 세차설비에 물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은 2030년 물 부족이 최악의 상황을 맞아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국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수리부가 경고하고 있다.

중국은 2030년 물 공급이 현재보다 최소 7000억-8000억m<sup>3</sup> 더 필요하지만 수자원은 1300억-2300억m<sup>3</sup>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.

물 공급부족의 영향은 농작물 생산을 감소시켜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각종 산업시설의 용수 공급제한으로 산업설비의 가동률을 하락시키고 있다.

또 물 공급을 위한 지나친 지하수 개발은 지반을 약화시키고 지표수의 부족으로 도시지역의 건물이 위협받고 있다.

전력자원 부족도 물 공급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.

중국은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물 공급부족이 전력 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

중국은 수력발전시설이 전체 발전설비의 23.9%를, 발전량은 14.8%를 차지해 2830억kWh에 달하고 있다.

한편, 중국은 2003년 120년만의 폭염을 겪으면서 850만명 이상이 식수부족을 호소했고 389만마리의 가축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. <이범의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30>